

나주서 펼쳐지는 미식 향연 ‘남도음식문화큰잔치’

23~25일 영산강정원...27개 시군구 대표음식 한자리

안유성 명장·정관 스님·천상현 셰프 참여...체험 풍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 영산강정원에서 남도 대표음식부터 유명 셰프와 명인의 음식을 맛보고 즐길 수 있는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가 오는 23~25일 개최된다.

18일 나주시에 따르면 ‘남도의 맛으로 하나 되는 통합특별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축제에는 27개 시·군·구 대표 음식과 각 지역 고유의 식문화를 한자리에서 선보인다.

올해는 단순히 음식을 전시하고 소개하는 데 그치지 않고 유명 셰프와 음식명인의 요리를 맛보고 어린이와 가족이 함께 음식을 만들어보는 체험·제류형 미식축제로 꾸며진다.

안유성 조리명장을 비롯해 정관 스님, 천상현 전청와대 총괄 셰프, 프랑스 명장 요리사협회(MCF) 셰프들이 참여하는 특별 미식 프로그램이 대표 콘텐츠다.

23일 안유성 명장과 프랑스 명장 요리



사회 셰프들이 함께하는 프로그램에서는 조리 시연과 플레이팅, 시식과 이야기 등을 통해 남도 음식의 색다른 매력을 선보인다.

24일에는 정관 스님이 자연과 제철 식

재료의 가치를 담은 사찰음식을 선보이고, 천상현 전 청와대 총괄 셰프가 참여하는 ‘최고의 만찬’이 주무대를 채운다.

남도음식명인들이 선보이는 가정식 한상과 발효음식 체험, 남도 반찬 만들기 등은 가족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마련한다.

어린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방문객을 위한 다채로운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된다.

24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총 2회에 걸쳐 어린이 인형극이 상연되며 24일부터 25일까지는 어린이와 보호자가 함께하는 쿠킹클래스가 해당 25팀씩 총 6회 운영된다.

이와 함께 축제 기간 3일간 연날리기 체험이 진행되고 주말에는 풍선아저씨 프로그

램도 운영해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풍성한 볼거리와 즐길 거리를 제공한다.

특별 미식 체험 프로그램은 23일부터 25일까지 모두 10회 운영하고 셰프와 음식명인, 지역 대표음식을 연계해 단순히 공연을 관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직접 맛보고 이야기를 들으며 남도의 식문화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참가비는 회차당 1만원이며 현재 티켓링크를 통해 선착순으로 사전예매를 진행하고 있다. 홍보 포스터의 QR코드를 이용하면 예매 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으며 일부 프로그램은 현장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할 예정이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에서는 나주만의

음식문화를 집중적으로 만날 수 있는 특별 공간도 마련된다.

개막일인 23일 오후 8시 30분과 24일 오후 8시에는 불꽃놀이를 선보여 맛과 공연, 야간 볼거리가 어우러지는 축제 분위기 를 더할 전망이다.

남도음식문화큰잔치 관계자는 “제31회 남도음식문화큰잔치는 전남광주 27개 시군구의 다양한 음식문화와 남도 미식의 깊이를 한자리에서 경험할 수 있는 축제다”며 “유명 셰프와 음식명인의 특별한 요리 뿐 아니라 나주의 오랜 음식문화와 새로운 미식 콘텐츠도 함께 만나보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나주·조현천 기자 pose007@gwangnam.co.kr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은 최근 스페이스고흥 누리울에서 공영민 군수와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군정 평가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사진제공=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청

고흥, 우주항공 중심도시 도약 등 민선 9기 공약 본격화

군정 평가·자문위원회 출범...공약 실천계획 점검

제2우주센터 유치·고속도로 국가계획 반영 등 논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고흥군이 민선 9기 공약 이행에 나섰다.

고흥군은 최근 스페이스고흥 누리울에서 공영민 군수와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 부서장 등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고흥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민선 9기 출범 이후 처음 열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 회의로, 민선 9기 군수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점검하

고 주요 정책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민선 9기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총 27명의 위원으로 구성됐으며, 회의에서는 위원장(전명숙 전 고흥군 의회의원)과 부위원장(고광남 고흥군수산발전연구회위원장)을 각각 선출하고 위원회의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군정 평가 및 자문위원회는 군수 공약사항의 이행 과정에서 군민의 입장과 전

문가의 시각을 반영하고, 주요 군정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위원들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면밀히 살펴본 뒤 군민의 입장에서 공약 추진 방향과 세부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민선 8기에 이어 민선 9기에도 군민과의 약속인 공약을 성실하게 이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민선 9기 고흥군수 주요 공약사항으로 는 대한민국 ‘우주항공 중심도시 고흥’ 비약, 제2우주센터 유치, 우주발사체 국가 산업단지 조성 및 기업 유치, 드론 중심도시 고흥 입지 강화, 군민 에너지연금 지급 기반 마련, 광주~고흥 간 고속도로 국가

계획 반영 등이다.

군은 위원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관련 부서와 함께 면밀히 검토하고, 이를 반영해 공약별 추진계획을 보완한 후 민선 9기 공약사항을 확정할 계획이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지난 7월 누리호 5차 발사의 성공을 발판 삼아 제2우주센터와 우주항공산업진흥원 유치를 박차를 가하고, 고흥의 미래 성장 기반이 될 3대 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민선 9기 공약을 내실 있게 추진해 지역의 성장동력을 강화하고 군민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오겠다”고 말했다.

고흥=김두성 기자 kds081177@gwangnam.co.kr

화순, 중·소형 이륜차 출장 정기검사

26~30일 읍·면 순회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은 지역 내 이륜자동차 검사시설 부재로 인한 군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중·소형 이륜자동차 출장 검사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출장검사 대상은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배기량 50~260cc 중·소형 이륜자동차이며, 검사 기간은 26일부터 30일까지다.

기존의 환경검사에 제동장치와 등화장치 등 안전검사가 추가되면서 검사항목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전조등이나 방향지시등 등 등화장치에 이상이 있으면 재검사를 받아야 하므로, 소유자는 사전에 차량 상태를 점검해야 한다.

출장검사는 26일 도곡면행정복지센

터, 27일 화순고인돌전통시장 공영장, 28일 청풍면행정복지센터·춘양면행정복지센터, 29일 동면행정복지센터·동북면행정복지센터에서 실시한다. 30일에는 추가 검사필요 지역에서 진행할 예정이다.

출장 검사를 받고자 하는 대상자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필증과 보험가입증명서, 검사수수료 3만원을 지참해야 한다.

주창현 행복민원과장은 “이번 출장검사는 검사기관이 없는 읍·면의 중·소형 이륜자동차 소유자가 원거리 이동 없이 편리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마련했다”면서 “검사 지연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는 일이 없도록 대상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화순군청 행복민원과 차량등록팀(061-379-3462)으로 문의하면 된다.

화순=구영규 기자 vip3355@gwangnam.co.kr

장성 ‘황룡강 작은도서관’ 12월 개관

친환경 원목 서가·열람석 등 조성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장성군 황미리랜드 인근에 조성 중인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12월에 문을 연다.

18일 장성군에 따르면 황룡강사업소 1층 힐링센터에 들어서는 ‘황룡강 작은도서관’은 군민과 황룡강 방문객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독서 공간이다. 약 164㎡ 규모 실내에 친환경 원목 서가, 열람석, 안내데스크, 진열대 등을 갖춘다.

도서관 조성사업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하고 KB국민은행이 사업비 1억5000만원을 후원했다.

장성군은 지난 7월 KB국민은행, (사) 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도서관 조성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한 이후 실내 공사에 박차를 가해 왔다.

현재 대부분의 작업을 끝마친 상황이

며, 이달 중 운영 인력 채용과 도서 구입 등 개관에 필요한 모든 준비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서관의 명칭은 군민과 군 공직자들의 의견을 반영해 정했다.

군은 앞선 6~7월 군 누리집과 행정시스템, 읍면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도서관 이름을 정하기 위한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새 도서관의 이름으로 확정됐다.

김한중 군수는 “많은 이들의 선한 도움과 관심으로 조성된 ‘황룡강 작은도서관’이 방문객들의 편안한 휴식처이자 황룡강의 새로운 독서문화 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개관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장성=이항범 기자 ihb6699@gwangnam.co.kr

담양서 시민참여연대 출범...전남광주 공동체 연결

행정·의회·학계 있는 플랫폼...현안 발굴·대안 제시

21일 발기인대회·창립총회 등 개최...공공가치 실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이후 시민 참여를 바탕으로 행정과 의정을 감시하고 지역 현안에 정책 대안을 제시할 독립적 시민사회단체가 담양에서 출범한다. 행정 중심의 통찰을 넘어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고, 통합특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하는 시민사회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18일 담양군에 따르면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 창립준비위원회는 오는 21일 오후 3시 담양군 금성면 담양미래학당 세미나실에서 발기인대회와 창립총회를 열고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시민참여연대’의 출범을 선언한다.

창립준비위는 시민참여연대를 특정

정당이나 정치인, 기업 및 이익집단으로부터 독립된 비영리 시민사회단체로 운영한다는 구상이다. 행정과의 대립 자체를 목적으로 삼기보다 공익을 기준으로 협력과 감시·견제의 역할을 병행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비판을 넘어 구체적인 정책 대안까지 제시하는 시민 플랫폼을 지향한다.

특히 전남과 광주의 통합이 행정구역과 조직을 합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이 창립의 배경이다. 저출생과 초고령화, 청년인구 유출, 지역 간 불균형, 기후위기와 환경문제,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일자리 문제 등 복합적인 지역 과제에 대응하려면 행정 주도의 정책 추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판단

이다. 시민사회가 지역 거버넌스의 한 축으로 참여해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에서 시민의 요구를 전달하고 공공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참여연대는 앞으로 시민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역 현안을 발굴하고, 행정과의 의견 활동을 공익적 관점에서 살펴 정책 대안을 제시할 계획이다. 시민과 행정·의회·기업·학계·지역공동체를 연결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협력 기반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운영 원칙으로는 시민 참여와 독립성, 공익성, 투명성을 내세웠다. 회원의 자발적 참여와 투명한 의사결정·재정 운영을 토대로 시민 권익과 공공가치를 실현하고, 행정과 의회에 대한 감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지역 발전을 위한 협력과 대안 제시를 병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창립총회에는 지역사회 각계각층의

준비위원과 발기인 등 50여명이 참석해 설립 취지와 창립선언문을 공유하고 향후 활동 방향을 논의할 예정이다. 행사에 앞서 정영일 전 광주NGO시민재단 이사장 등이 기조강연을 통해 통합특별시 시대 시민사회의 역할과 과제를 짚는다. 행사는 발기인대회 20분, 창립총회 30분, 기조강연 40분 등 총 90분간 진행된다.

나향도 창립준비위원장(NGO학 박사)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 미래는 행정체계의 통합만으로 완성될 수 없으며 시민의 삶과 목소리가 정책의 중심에 놓여야 한다”며 “시민참여연대는 시민의 힘을 키우고 시민과 행정이 함께 지역의 해법을 만들어가는 공익적 연대의 장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작은 지역의 현장에서 출발하더라도 시야는 전남과 광주 전체를 향한 계획”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좋은 거버넌스를 만들고, 좋은 거버넌스가 지속 가능한 전남광주를 만드는 시민사회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담양=이사수 기자 iss270@gwangnam.co.kr

